

경제

■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1단계 마무리

지역 먹여살릴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됐다

정부가 광주와 전남·북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1단계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호남권이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6일 지식경제부와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등에 따르면 1단계 사업이 진행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참여기업들의 총 매출액이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지난날 말 현재 기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 프로젝트 부문의 경우 22개 과제에 1008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했으며 4143억 원의 매출과 2억

4개산업 총 4191명 고용창출

참여기업들 매출 10배 늘어

광산업 매출 195% 초과 '두각'

441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또 풍력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13개 과제에 350명의 고용효과와 함께 2100억 원의 매출 그리고 4300만 달러의 수출을 달성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달부터 시작된 2단계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태양광과 풍력 시스템·모듈 등 2개 프로젝트 ▲라이프케어 산업 분야에서는 바이오식품과 바이오합성소재 등 2개 프로젝트를 각각 선정했다.

■ 김동근 단장

“R&D 패키지로 시너지... 호남권 신뢰 구축 성과”

김동근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 지원단장은 지난 1단계 광역선도산업의 가장 큰 성과로 '호남권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은 김 단장과 일문일답.

질문: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 지원단장은 지난 1단계 광역선도산업의 가장 큰 성과로 '호남권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은 김 단장과 일문일답.



의 문제로 대부분의 사업이 따로 진행되어 오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못한 것이 사실이다.

남·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도움도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1단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큰 힘이 됐다.



지난해 9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1 지역발전주간(Regional Development Week)' 전시장 내에 설치된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관 전경.

신박 프로젝트 등이 선정되는 등 전체적으로 4개 선도산업과 8개 프로젝트, 27개 유망종목을 각각 선정했다.

이밖에 선정된 2단계 광역선도사업은 1단계 광역선도사업을 통해 파악된 권역별 산업집적도와 지역 경쟁력, 혁신 자원의 현황 등을 감안,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됐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호남권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현황

Table with 4 columns: Industry, Project, Key Products, and Representative Companies. Rows include Solar Power, Renewable Energy, Bio-food, and Life Care.

태양광 기초소재 생산 한국 실리콘(주)

초고순도 폴리실리콘 생산 1650억 매출 94명 고용창출

태양광 발전용 폴리실리콘 전문 제조업체인 여수지역 한국실리콘(주)은 지난 2010년 1월 시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올해는 연간 1만2000MT의 생산라인을 구축할 만큼 규모를 확대하는 등 호남 광역선도산업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한국실리콘이 생산하는 한 세계 최고수준의 고효율 STC-TCS 폴리실리콘

지난 3년간 광역선도사업을 통해 국비 28억3000만 원을 지원받은 한국실리콘은 태양광산업의 핵심기초소재인 고효율의 폴리실리콘을 제조하는데 필요 한 세계 최고수준의 고효율 STC-TCS 변환기 시스템 개발에 성공, 지난3월 말 기준 매출 1650억 원, 수출 7180만 달러에 94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달성했다.

2010년 1월부터 9N(99.9999999%)이상의 초고순도 폴리실리콘제품을 생산, 안정성과 고품질을 국내외 시장에서 인정받은 한국실리콘은 현재 10년간 17억5000달러의 장기 수출계약을 맺은 상태로, 전체 매출 중 해외수출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전 세계적으로 900억 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태양광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서, 한국실리콘은 태양광시장의 공급과잉에 대처한 저가형·고효율 전략을 채택,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태양전지 모듈 전문 생산 (주)탑선

대면적 모듈 최적 생산장비 개발 매출 600억원 수출 2천만불 기대

최근 들어 태양광 시장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저가화·고효율화를 통한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시급한 과제에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탑선이 이 같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관련제품의 매출 600억원, 수출 2000만 달러, 고용 30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탑선이 생산하는 고효율 태양전지 모듈 태양전지 모듈 전문 생산업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탑선은 현재 400Wp급에 머물고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을 600Wp 및 750Wp급의 대면적 모듈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광역선도사업에 참여, 지난 3년간 총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자유투어' (JAYU TOUR)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to destinations like China, USA, Europe, and Australia. Include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branches.

예/약/상/담 | 북구점 267-8587 | 상무점 652-2974 | 시청점 382-3300 | 동구점 227-8255 | 하남점 954-9700 | 목포점 061-284-1000 | 광양점 061-794-8804 | 전주점 063-284-6868